“복원 옛 전남도청 명칭에 ‘국립’, ‘5·18’ 담겨야”

협의회, 전일빌딩서 토론회 개최
“기능·가치 담은 명칭 필요” 한뜻
‘정부’가 운영…주관 부처엔 이견

옛 전남도청 복원 건물의 명칭에 ‘국립’, ‘5·18’ 등의 표현을 담고 운영은 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옛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원회로 구성된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는 11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옛 전남도청 명칭 및 운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오는 2026년 5월 개관을 앞둔 옛 전남도청의 새 명칭과 운영 주체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발제 ▲1부 토론 ▲2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옛 전남도청 복원건물(전시관 등) 조직 구성·운영 방안 기본연구’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영수 프라임전략연구원 대표는 “복원 건물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닌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국가 민주주의의 역사 공간으로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보다는 정부 주도의 운영이 바람직하며 행정안전부나 국가보훈부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적합하다”면서 “운영 주체는 1차 소속기관 체계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에서는 ▲국립5·18민주(역사)기념관 ▲국립5·18(민주)항쟁역사관 ▲국립5·18(민주)항쟁전시관 등 복원 건물의 명칭 후보안도 함께 제안됐다.

1부 ‘옛 전남도청 복원건물을 상징화할 수 있는 명칭’ 토론에서는 의미와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강신겸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건물의 명칭은 그 기능과 가치를 담아야 한다”며 “‘전시관’이나 ‘기념관’보다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담은 이름이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전진성 부산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건축사와 지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공간을 특정 시점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며 “‘역사박물관’과 같은 중립적 명칭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명칭에 ‘국립’이라는 표현을 포함해 공공성과 상징성을 명확히 하고, ‘5·18’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2부 ‘옛 전남도청 복원건물의 지속 발전을 위한 운영 주체 방안’ 토론에서는 운영 주체는 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지만, 주관 부처를 두곤 이견을 보였다.

김공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총무국장은 “옛 전남도청은 5·18 최후 항쟁지로, 국가 폭력과 관련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운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성학 기자

광주기상청, 기념일 날씨 제공 이벤트

광주지방기상청은 11일 “광주·전남 지역민을 대상으로 12-20일 ‘기념일 날씨 제공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대상자는 광주지방기상청 누리집, 페이스북 QR코드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한 100명으로, 각 대상자들의 기념일 정보와 그날의 기상요소(최저·최고기온, 평균풍속, 강수량)가 새겨진 사진액자를 제공한다. /장은정 기자

동구 “폭염 대비 살수차 등 운영”

광주 동구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동구에 따르면 도심 열섬 현상 완화, 주민 안전·건강 보호를 위해 1억7천여만원을 투입해 ▲살수차 운영(3대) ▲폭염저감시설 추가 설치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폭염대응물품 지원 등을 실시한다. /장은정 기자

더위 식혀주는 쿨링포그

한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은 11일 광주 서구 상무시민공원에 설치된 쿨링포그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쿨링포그는 미세한 물 입자를 공중에 분사해 주변 온도를 약 3-5도 낮춰주는 냉방 설비로 폭염 저감 효과가 뛰어나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 기자

道교육청, ‘학령인구 위기 극복 5개년 계획’ 추진

학령인구정책과 신설…대응 방안 마련
내달 14-15일 ‘작은학교 아고라’ 개최

전남도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6-2030 지속가능 전남글로컬학교 실현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소멸 및 교육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지역사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남교육 지원 정책과 추진 전략을 세워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전남의 인구 추계를 보면 2023년 대비 2040년까지 전체 인구는 약 7.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46.4%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남의 학생 수는 2025년 16만9천여명에서 2029년 14만5천여명, 2040년에는 10만7천여명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령인구정책과’를 신설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령인구 위기 극복, 지속 가능 전남글로컬학교’ 정책 수립을 위한 TF를 조직해 운영 중이다. TF는 문태홍 정책국장을 단장으로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교직원 30명으로 구성됐으며 김미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운영을 총괄한다.

5개년 계획의 3대 전략은 ‘전남교육 강점 강화’, ‘지역교육 위기 완화’, ‘전남글로컬교육 특화’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확대 ▲작은학교 기준 재정립 ▲농산어촌유학 사업 리뉴얼 ▲지역 맞춤형 글로컬 작은학교 모델 도입 ▲학교 소규모화 지수 개발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대상 확대 ▲교직원 인사제도 혁신 ▲작은학교 특성화 강화 ▲전남글로컬시민교육과정 운영 등 실천 중심의 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TF 운영을 바탕으로 정책 초안을 세밀히 다듬고, 오는 7월14-15일 ‘2025 전남 작은학교 교육공동체 아고라’(학교리더 연찬회, 청년교직원 패널 원탁토론 등)를 포함해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다각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대중 도교육감은 “그동안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2030교실, 전남학생교육수당, 전남미래국제직업고 설립 등 ‘K-교육’의 선두에 서 왔다”며 “이제는 글로컬 전남교육을 통해 학령인구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전남교육이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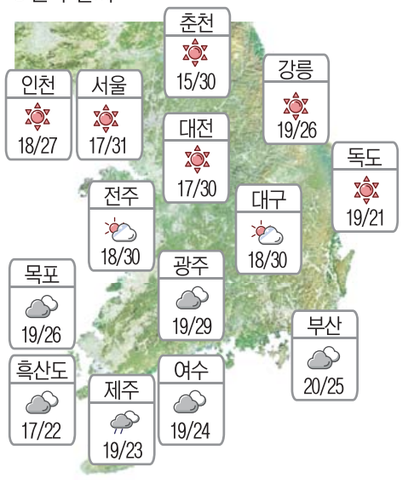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05:18 해짐 19:47 달뜸 21:01 달짐 05:28

●광주·전남 날씨

광주	구름많음	19/29	장성	구름많음	17/30
목포	구름많음	19/26	보성	구름많음	17/25
여수	구름많음	19/24	함평	구름많음	17/28
나주	구름많음	17/28	순천	구름많음	18/25
완도	구름많음	18/25	영광	구름많음	17/29
구례	구름많음	17/28	진도	구름많음	17/25
강진	구름많음	18/26	흑산도	구름많음	17/22
해남	구름많음	18/26	고흥	구름많음	17/26
광양	구름많음	19/27	담양	구름많음	18/28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0.5-0.5	0.5-0.5
	먼바다(북)	0.5-1.0	0.5-1.5
	먼바다(남)	0.5-1.5	0.5-2.0
남해 서부	앞바다	0.5-0.5	0.5-0.5
	먼바다(동)	0.5-1.0	0.5-1.0
	먼바다(서)	0.5-1.0	0.5-1.0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2:56	08:13	여수	09:25	03:42	녹동	10:03	04:48
	14:38	19:57		22:09	15:21		22:52	16:13

●생활정보지수

나들이 60 — 감기 조심해요
세 차 50 — 차 내부정돈이 좋아요
빨 래 50 — 실내건조 좋아요
운 동 40 — 운동 후 체온 유의

●주간 날씨

13일(금)	14일(토)	15일(일)
(20/27) 구름 비	(22/26) 흐림	(22/27) 구름 비
16일(월)	17일(화)	18일(수)
(21/28) 흐림	(21/29) 구름조금	(21/30) 구름조금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